

집편 회학어선조

# 한글

第三卷 第九號 (十一月號)

七錢

昭和十九年四月十一日(第三種郵便物認可)  
(毎月一日一回發行)

## 차 목

朝鮮語의 時間表示法	李 克 魯	(1)
한글날에 대하여	이 윤 재	(4)
마춤법과 三新聞	宋 柱 星	(7)
金鳴鎮氏의 反省을 促함	李 錫 麟	(13)
讀書에 先後가 있다	池 鳳 旭	(16)
朝鮮語讀本 卷二 指導例	沈 宜 麟	(18)
朝鮮語讀本 語彙調査	李 浩 星	(20)
신기한 소	송 렬 부 인	(23)
로빈손 무인철도 표류기(七)		(28)
조선어학회 기사		(32)

319-2-3(9)=2



# 朝鮮語學會 規則

第一條 本會는 朝鮮語學會라 稱함

第二條 本會는 朝鮮語文의 研究와 統一을 目的함

第三條 本會는 前條의 目的을 達하기 爲 하여 左記 部署를 設함

- 經理部
- 庶務部
- 會計部
- 出版部
- 圖書部

第四條 本會는 京城에 設함

但 地方에는 支會를 設기 得함

第五條 本會의 入會는 本會 會員의 推薦으로 幹事가 審査한 後에 許諾함

但 入會를 許諾한 때에는 入會金 壹圓을 納여야 함

第六條 本會 會員은 每年 會費 貳圓을 負擔함

第七條 本會 會員으로서 一年 동안 한번도 모임에 出席이 없고 會費를 내지

아니한이는 別會員으로 編入함  
但 退會를 願하는이는 幹事長에게 退會를 請하여야 함

第八條 本會의 目的과 事業을 贊成하는 이는 本會의 贊成員으로 함

第九條 本會에는 任期 一年의 幹事長 一人과 各部 幹事 一人씩을 設함

一、幹事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各部를 統轄함

二、經理部 幹事는 本會의 經營에 專力함

三、庶務部 幹事는 本會의 通信、記錄、其他 다른 部に 屬하지 아니한 事務를 맡음

四、會計部 幹事는 本會의 會計事務를 맡음

五、出版部 幹事는 本會의 出版事務를 맡음

六、圖書部 幹事는 本會의 文庫事務를 맡음

幹事長과 幹事는 總會에서 選舉함。 必要를 따라 部員 若干人을 設할 때

에는 幹事會에서 選定함

第十條 本會는 每年 四月에 定期總會를 열되、本會員 三分之一 以上の 出席이 得함

但 定員에 達하지 못할 때는 在京會員數의 三分之一 以上으로도 開會함을 得함

第十一條 必要한 때에는 臨時總會를 열기로 함

第十二條 本會는 每月 한번씩(월재 土曜日) 月例會를 열음

第十三條 本會는 本會의 目的을 이루기 爲하여 다음과 같은 事業을 行함

- 一、講演會
- 二、講習會
- 三、講義錄、學報、研究叢書、調查報告書、關係 古文獻、其他 必要 書籍의 出版

第十四條 本會則을 고치려 할 때에는 總會의 決議를 얻어야 함

第十五條 本規則에 未備한것은 幹事會 또는 總會의 決議로 行함



# 朝鮮語의 時間表示法

李 克 魯

一、世界各民族의 말은 오래 동안에 질로 發達된 어은 自然語이요, 에스페란토와 같은 한 學者가 論理的으로 지어낸 人造語가 아니다. 그러므로 그 發達된 形態는 케 각각 形形色色으로 되었다. 그런데 이케 생 각을 말로써 나타내는 데에 가장 重要한 關係를 가진 時間問題를 들어 말하고커 한다.

各 民族語의 時間表示法을 살펴어본다면 어떤것은 單純한 語尾로, 어떤것은 아주 單 말로, 또 어떤것은 여러 다른 말을 綜合하여 한가지의 時間을 表示하게 되었다. 그래서 複雜하고 不規則하기가 짝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論理的으로 생각한다면 時間表示에 두가지 큰 區別이 있다. 첫째는 말하는 사람의 立場을 標準 삼은 主觀的 時間이요, 둘째는 어떤 行動과 存在와의 立場을 標準한 客觀的 時間이다.

우리가 어떤 지낸 일을 말하면 그것은 다 過去다. 그러나 그 當時의 여러 動作은 마땅히 先後가 있었을 것이니 곧 過去 現在 未來가 있었을 것이다. 또 이

와 같이 우리가 다음 일을 말하면 그것은 다 未來다. 그러나 그 當時의 여러 動作은 마땅히 先後가 있었을 것이니 곧 過去 現在 未來가 있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케 하는 일을 말한다면 역시 여러 動作은 마땅히 先後가 있을 것이니 곧 過去 現在 未來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論理에서 人造語 에스페란토에는 動詞의 時間表示法은 아홉 가지로 定하였나니 다음과 같다.

主觀的 時間      客觀的 時間

過去時의	現在時의	未來時의
過去	現在	未來
過去	現在	未來
過去	現在	未來

二、朝鮮語의 形容詞에 時間의 補助語幹은 現在를 除하고는 動詞에 붙는 그것과 같다. 이것을 보고는 후 생각하기를 조선말에는 形容詞가 없고 動詞뿐이라고 한다. 西洋말의 動詞와 形容詞를 비교하여 알면 생각하면 그럴듯도 하다. 그러나 이 우에 말한 에스페란토





6818052

의 論理的으로 된 時間表示를 가지고 한번 전주어 생 각한다면 얼마나 재미 있는것을 알것이다. 조선말의 形容詞에 붙는 時間은 말하는 사람의 主觀的 時間이니, 그때에 그런 狀態도 있었다든지 또 있겠다든지 하

들면,   
종이가 허었고 이케는 누르다. 그러나   
검졌다.   
는 더웠고 오늘은 따뜻하다. 그러나

冠形語 時間表示는 더욱 發達된것이 나, 冠形語를 만드는 토로서, 또 時間을 나타내는 單明瞭한 법으로 되었다. 이케 冠形語에 쓰이는 時間 形의 例를 들면,

먹은. 먹던. 먹는. 먹을. 검은. 검던. 검을   
의 「은, 던, 는, 을」을 가지고 본다 하여도 形容詞에 쓰일 때에는 이 우에 말한바와 같이 말하는 사람의 主觀的 時間이요, 客觀的 時間인 곧 動作的 時間은 아니다. 그러므로 形容詞에는 現在進行을 나타내는 「는」을 쓰지 못하나니, 그 까닭은 形容詞에는 進行的 動態의 時間表示가 있을수가 없고, 다만 그러한 狀態로 이루어진것만 나타내는것이다. 그러므로 動詞에 過去 即 現在完了로 쓰이는 「은」으로써 形容詞에는 現在狀態를 나타낸다. 곧 말하면, 검은 종이는 이케 우리 보

는 사람의 눈앞에서 검어지는것이 아니라, 그전에 벌써 검어진것이다.

四. 獨立的 時間. 이것은 어떠한 時間들의 互相關係가 없이 케홀도 現在나 過去나 未來를 나타내는 時間表示니, 現在에는 語幹에 바두 끝맺는 토가 불고, 過去에는 補助語幹 「었」 후 「았」이 불고, 未來에는 補助語幹 「겠」이 불는다.

例를 들면

그 사람이 글을 씁니까.   
그 사람이 글을 씁니다.   
그 사람이 고기를 잡았습니까.   
그 사람이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사람이 책을 주었습니까.   
그 사람이 책을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밥을 먹었습니까.   
그 사람이 밥을 먹었습니다.   
但 現在를 나타내는 不規則로 「는다」(바침 밑의), 「다」(母音 밑에)가 있나니, 例를 들면,   
적는다.   
잡는다.   
찾는다.   
맞는다.   
고른다.   
신는다.   
잡는다.   
찾는다.   
맞는다.   
고른다.   
받는다.   
잡는다.   
맞는다.   
고른다.   
받는다.   
잡는다.   
맞는다.   
고른다.   
받는다.



준다. 든다. 된다. 된다.  
 된다. 든다. 된다. 된다.  
 된다. 든다. 된다. 된다.

五、相關的 時間。 이것은 두가지 時間의 互相 關係  
 를 가지고 나타내는 時間表示니, 아래와 같은 것이다.

冠形語의 時間 述語의 時間  
 —는 現在繼續 現在完了  
 —던 過去繼續 過去完了

—(을) 바침 밑) 未來繼續 —었겠 未來完了  
 例를 들면,  
 이케 卒業式에 學生들이 先生들에게 作別하는 때에  
 卒業證書는 벌서 주었다.  
 어케 卒業式에 學生들이 先生들에게 作別하던 때에  
 卒業證書는 벌서 주었다.  
 내일 卒業式에 學生들이 先生들에게 作別할 때에 卒  
 業證書는 벌서 주었겠다. 끝

金秉琰씨의厚意

한글 라이우라이터 기부

현재 문화생활에 없을수 없는것은  
 라임우라이터이니, 연전에 송기주(宋  
 基柱)씨가 미주에 유학하는중에 다  
 년 고심한 결과 한글로 바꿀수 있  
 는 라임 우라이터를 발명하여, 우리  
 글로 자유자재하게 바게 되어, 이미  
 장호에 높은 평가를 얻은것은 우리  
 가 다 아는바이다.  
 금년에 평안남도 장서(江西)에 사

는 김병준(金秉琰)씨가 특히 본회를  
 사랑하여, 시가 이백 삼십 구원이 나  
 되는 한글 라임우라이터 일좌를 지난  
 시월 이십삼일에 본회에 기부하여주셨  
 다. 우리 일반 회원은 해씨의 두터  
 운 뜻을 감격하여 말지 아니하며,  
 앞으로 이 귀중한 기계를 잘 이용하  
 기로 하고 있다.

社告

아래와 같이 支社를 新設하였습니  
 다.

全北全州邑大和町 天主敎會  
 責任者 徐 廷 壽  
 平北宣川郡水清面嘉物南洞  
 責任者 田 蒙 秀  
 慶南金海邑  
 責任者 盧 在 甲  
 朝鮮語學會



# 훈민정음 대흥영

(訓民正音頒布紀念日)

## 이 윤 재

이미 지난 일이지만, 한글날의 날자를 가지고 이  
리구리구 떠드는 어떤 호사자(好事者)의 작난 같은  
일이 며칠전에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구태여 밝히려  
고 할것까지는 없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혹시 세상  
사람의 현혹을 일으킬까 하여, 여기에 그 날자의 유  
래에 대하여 간단히 말하련다.

애초에 한글날이 생기어지기는 지금으로부터 만 구  
년전 병인(丙寅)년 음력 구월 이십구일인데, 이 해는  
다행히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지어 펴시던 그해의 병  
인하고 해의 이름이 같고, 세종 병인년에서 사백 팔  
십년째되는 곧 팔회갑(八回甲)을 당하는 해였다. 이것  
을 세종실록(世宗實錄)에서 찾아 알고, 그때 조선어연  
구회(朝鮮語研究會) 朝鮮語學會의 前身)에서 국립관(國  
一館)에 모이어 케일차의 축하 기념을 행하였다. 그  
자리에서 이 날을 무엇이라 할가 하는 의논이 날 때  
에 어떤분이 「가가날」이라 함이 어떠냐고 하는것을 질  
려 신문지상에 「가가날」이라고 쓴 까닭에 몇해까지는

「가가날」이란 말까지 유행되었었다. 그리고 이와 동시  
에 또 신민사(新民社) 주최로 식도원(食道園)에서 한  
글 팔회갑 잔치를 성대히 베풀었는데, 거기에는 사회  
의 명사들과 관료계급과 및 외국사람까지 모인수가 실  
로 사백여명의 다수로 자못 훌륭한 기념식이였다. 이  
로써 세상에 널리 알려졌으며, 그때부터 해마다 음  
력 구월 이십구일도쳐 한글날을 칭하여 축하 기념을  
하여오던터이다.

한글날이 음력 구월 이십구일이라 함에 대하여, 먼  
져 어윤척(魚允迪)씨가 그 직확함을 증명하였고, 이어  
서 김문식(金汶植)씨는 한글날이 십일월 초팔일이라는  
이론(異論)을 주장하다가, 어윤척씨에게 도두 반박을 받  
고 다시는 말하는이가 없었다. 그리하여 한 유년까지  
는 아무말없이 그대로 지내어왔다.

이 중대한 명찰이 음력으로 되어있는것이 모든 집  
으로보아 좋지 못함을 알고, 우리는 이에 음력 일자를  
양력으로 환산하여 고치기로 작정하고, 이명철(李明七)  
씨 권상로(權相老)씨 두분의 환산한 일자가 꼭 같이  
양력 시월 이십구일이 되므로(換算表는 그해 각신문  
지와 한글 케일권 케오호에 발표되었음) 그후부터 양  
력 시월 이십구일을 한글날로 칭하여, 그 다음해까지  
두해동안은 이 날에 기념식을 행하였다.

그리다가 작년에 이르러서 음양력 환산 방법에 다소



의아되는 점이 일어나게 되니, 그것은 처음에 양력으로 계산할 때에 세종대왕 당시 서양에 시행되던 율리우스 역서(曆書)를 기준삼아 환산한 것인데, 그것보다 서력 一五八二년 이후로 오늘날까지 사용되는 고레교리 역서를 좇는 것이 더욱 좋다는 뜻으로 고쳐 환산한 결과, 다만 하루의 차의로 양력 시월 이십팔일이 되었다. 이에 대하여 만일의 오착이나 있지 않음이 염려하여, 사제 각 전문대가(專門大家) 이명칠(李命七)씨, 권상로(權相老)씨, 연희전문학교 교수 이원철(李源喆)박사, 인천 있는 조선총독부관측소(朝鮮總督府觀測所), 경성 있는 경기도립측후소(京畿道立測候所), 및 만주국립중앙관상대(滿洲國立中央觀象臺)에 근무하고 있는 김시중(金時中)씨에게 촉탁하여 문의하였던바, 다 의견이 일치하므로, 우리는 세종대왕 이십팔년 병인 구월 이십구일이 양력으로 시월 이십팔일인 것을 확실히 믿어 다시 의심할 것이 없었다. 그리하여 작년의 비로소 한글날을 시월 이십팔일도 칭하여 기념식을 행하였으며, 금후로는 영영 변하지 않고, 이 날을 지키기로 한 것이다.

우리는 이만큼 신중히 작정하여 시행하는 때에, 평소 애 항상 기괴한 이설(異說)을 주장하던 박승빈(朴勝彬)씨를 중심으로 하는 몇몇 사람으로서 중불나게 또한 소리를 내어 말성거리를 만들려드니, 그것은 실록(實錄)에 세종대왕 병인년 구월 이십구일 날자 아래

에 「是月訓民正音成」이라 하였으니, 꼭 그 날이 아닌즉, 그 달의 대표되는 일자를 초월일로 칭함이 옳다는 것이 다. 그리하여 그들은 새삼스리 한글날을 구월 일일로 칭하고, 지난 구월 삼십일(양력으로 환산한)에 소위 훈민정음반포기념식을 한다 명칭하고, 모모 인사를 요리 집으로 청요하여, 일자 개정에 대한 의론을 내었으나, 이론(異論)이 백출하여 아무 신중한 결정이 없이 유야무야중에 흘러지고 만 일이 있었다.

한글을 반포한 날자에 대하여는 실록(實錄)에 「是月」이라 한 것이 문체가 되었으니, 곧 나라에서 그 달동안 행한 일을 나날이 적어가다가, 남은 것은 대개 그 달 그믐의 날자 아래 적고, 뒷머리에 「是月」이라고 쓴 것이 보통이다. 우리 역시 이에 대하여 생각하지 아니한바도 아니나, 그 정확한 일자는 어떠한 문헌에도 찾을 수 없는 것이니, 꼭 그 날이 아니라 하여 그만 둔다면 이어나와, 이미 기념할 날을 칭하는데 있어서는 한가지 표준이 없지 아니할 것이다. 곧 실록에 실린 구월 이십구일 아래 그 사실이 나타난 것이며, 또 그때의 구월이 적은 달 곧 이십구일이 그믐날이니 그 날이 족히 그 달의 대표 날자가 될 수 있는 것이며, 또 큰 십년동안이나 구월 이십구일로 지켜와서 이미 권민중적으로 깊이 인식이 된 것을 새삼스리 새 날자로 고쳐 현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와같이 음



력 구월 이십구일 곧 양력 시월 이십팔일로 정하는 것이 사리에 어진 일이 없겠거늘, 공연히 아무 근거없이 단권을 벌릴 까닭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신중하게 할 의사로 다시 사학가(史學家) 모든 권위를 망라한 진단학회(震檀學會)와 그 밖의 여러 사학(史學) 전문가에 대하여 훈민정음 반포한 날자에 관한 실록의 해석을 질경하였더니, 진단학회에서 다음과 같은 회답이 왔으며, 다른 학자도 다 의견이 일치하였다.

그 회답을 적요하면 다음과 같다.

(1) 史錄 記載例에 依하면, 日字가 未詳한 事件은 그 月末에 記錄하고, 달까지 未詳한 境遇는 그 年末에 記錄하는 것이 例規가 되었은즉, 달이 未詳한 記事를 正月에 包入시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日字가 未詳한 記事를 一日에 몰아넣을 수 없다.

(2) 어느 달을 代表하는 날을 정하려 할 때에는 一日이나 十五日보다 晦日이 가장 妥當하니, 그 理由로는 訓民正音 頒布와 같은 紀念할만한 事件을 追慕하고 祝賀하는 날은 그 事件이 發生한 以後 日이라야만 될 것이다. 그러므로 晦日은 그 달 어느 날 發生된 事件일지라도 發生 當日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以後의 日이 될 수 밖에 없다. 만일 一日로써 어떠한 事件을 記念한다면 그 날이 그 事件의 發生 當일에 該

當한 蓋然率은 三十分의 一, 혹 二十八分의 一 밖에 아니 되고, 그외에는 모두 一日以後에 發生되었을 것이니 즉, 事件이 發生된 以前의 날로써 그 事件을 紀念하는 것은 事理에 너무도 어그러진다.

(3) 별시 十個年이나 九月二十九日에 紀念祝賀式을 舉行하여왔은즉, 이것은 별시 相當한 歷史性을 가지게 되었다. 어떠한 文化領域에 있어서든지 그 歷史性을 無視하여서는 안된다. 지금 九月 一日로써 紀念을 삼는다 假定하면, 一日도 精確한 그 事件 發生日이 못 되는 以上, 무슨 까닭으로 十年間의 歷史를 無視하여 가면서 새삼스럽게 또 다른 날로 改定하려는가.

우리는 이와같이 신중히 하여 한글날을 음력 구월 이십구일로 지켜왔고, 또 다시 양력으로 환산하여 시월 이십팔일로 확정하였다. 그들은 결핍하면, 조선어학회에서 작성한 기념일은 틀렸으니, 실록을 잘못 해석하였는지 하지마는, 기념일을 정한 것도 조선어학회가 아니요, 실록을 해석한 것도 조선어학회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분담한 조선어학 연구의 영역(領域)에 포함된 직분도 이두 감당하기 어렵거든, 해가에 역사를 평석하며 계산에 손을 대랴. 역사의 해석과 양력일자 환산을 모두 사제 전문대가들에게 위탁하여 한것임을 다시 말하여 둔다. 그러므로 이것은 일개 조선어학회의 기념일이 아니요, 조선인 전체의 명절이다. (十二頁에 續)



# 마춤법과 二新聞

宋 柱 星 (寄)

## 一、처음 말

우리의 語文運動! 그 뜻은 진실로 크고도 깊은 것이다. 이는 오늘날에 있어서나 延하여는 앞날에 있어서의 우리 文化의 根幹이 될것을 믿을 때는 이에 關心을 아니 가질수 없으며, 따라서 이 거룩한 運動으로 한여름 어떻게 하면 하두바베 完成의 域에 到達하게 할수 있을가를 心祝하지 않을자 없을 것이다.

과연 우리들의 期待的인 이 大業은 常道로 들 어섰으니, 마춤법 통일 운동은 커 감질을 바로 잡아 들고, 이에 버금하여 標準語 査定까지 完了에 가까웠으니, 이렇게 우리들의 大業이 豫定順序대로 着着 進行됨에는 奇蹟로 感謝와 讚頌을 禁할수 없도다. 이와 같이 語文 運動은 그 自體로서는 活潑한 進 展을 보이고 있으나, 이의 對象이 될 社會로서는 이와 어울림이 不足한듯한 느낌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마춤법 통일안이 發布된지 於焉 二年이 지나, 이에

對한 一般의 認識이 날로 짙어감은 事實이나, 實際 통일 普及에 이르러서는 無統制의 歷史가 오렸으니 만큼, 아직 앞길이 멀다 하겠도다.

무엇보다도 오로지 文筆에 從事하는 所謂 文人이 란 稱號를 받는이들 가운데서도, 그 文章의 綴法 이 可笑로움을 보겠거늘, 하물며 大衆的으로서는 論 할것도 없겠도다. 語文運動! 본디 이와 같은 國家 的인 運動이란, 國家의 強制力이 遂伴되고서야 그 實 現이 容易할지니, 統制的 權力이 없는 社會에서는 착 실히 힘드는 일이어서, 오로지 大衆의 個別的 修練 에서만 期待될것이라 아니할수 없도다.

그런데다 몇몇 機關의 大衆的 普及運動조차 束手 無策의 處地에 놓이게 된것 같으니, 이케아 말도 綴 字 普及의 實際運動이란 學校教育 方面을 通한 部 分的 効果を 例外로 하고는 그 힘을 나타낼수가 極 히 어렵게 되었다고 볼수 있다.

이에 온 사회는 倍前하여 統一 普及戰線으로邁 進하여야 될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며, 또한 그렇게만 먹어 마땅한것이다.

그러면 지금에 있어서 어떻게 하여서 우리의 마춤법 통일 運動을 피할것이냐? 나는 믿고저 한다. 그는 다만 新聞을 비롯하여 雜誌等 出版物의 舉皆 綴字法 實施에 있다고!



무릇 新聞等 言論機關이란 그날그날의 發生하는 事物을 報道하는 報道機關으로서만 存在한다 할진대, 그 意義는 薄弱하다 양을 수 없나니, 마땅히 그 어떠한 指導精神 아래에서 正當한 輿論을 喚起하며, 좋은 일은 率先 實踐함으로써, 본디 大衆에 되는 先導者的 責任을 다하는대서 그 참된 文化的 使命을 찾을수 있을것이다. 이런 點으로 보아 朝鮮 社會에 있어서의 言論機關의 地位란, 실로 重要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切實한 期待를 가질 우리의 諸言論機關은 마춤법을 통한 文化的 使命에 있어서 어떠한 態度로서 나아가고 있는가? 주장으로 우리의 三新聞에 대하여 그 紙面으로의 反映되는바를 살펴보고자 한다.

## 一、 줄기 말

**東亞日報** 가 한글 맞춤법을 實施하기는 一九三三年 四月이었다. 바로 朝鮮語學會의 統一案의 草案이 作成되었을 때이었다. 이것이 三新聞中에서는 물론 한글 出版物로서의 新綴字法 使用으로 嚮矢에 들것이다. 뒤따라 活字의 改正과 아울러 오늘날까지 全紙面을 通하여, 徹底히 實行하여오는 것은 과연 朝鮮 言論機關中 第一人者的 地位인 該報로서 그럴만한 努力이라 하겠다.

더욱이 東亞報가 新綴字法을 採用함으로써 한때는 打擊을까지 받았었다 한다. 이는 當時 老衰階級에서 의 갑자기 나타나는 낯설은 글자의 讀破難으로 因한 部數의 減少를 招致한 까닭이었었다 한다. 그러나 이같은 過渡期的 現象은 그대도 있을리 萬無한 것이다.

大衆의 깊어가는 認識과 自覺에 따라, 지금에 이르러서는 도리어 熱烈한 歡迎으로 變하게 된것이라 한다. 그렇기 一時的 局部的 희생을 돌보지 않고, 眞實한 指導者的 態度를 取하는바는 實로 그 뜻깊음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綴字法 使用에 있어, 亦幾個의 不滿과 疑訝를 느끼게 함이 있나니, 그는 徹頭徹尾 마춤법을 準用하지 않음이다. 間或 記事를 통하여 綴字法이 徹底하지 못함은 記者들의 未完成的 無知에 因함일지니, 이는 諸他 刊行物의 共通된 卽로서 그 將來를 믿을수 있겠거니와, 該報가 一九三三年 四月 新綴字法 實施 當時 宣明한 公約을 默殺한 그것이다. 그는 그때 附言하여 가로되, 「將次 語學會의 統一案이 完成될 때는 그것에 追從하리라」 하였으니, 그때의 — 지금의 綴字法案은 該社로 特정한 暫定的 私案이었음을 意味한 것이었다. 그러면 東亞의 社案(現在 使用案)은 統一案에 對하여 무엇이 다른나 하면, 一般이 보는바어니와, 「ㅎ」바침과 「ㄷ」바



침을 쓰지 않는點이다. 더욱이 「중」바침은,當初부터 該社案으로서 制定된바인대도 不拘하고, 지금까지 公 式으로 使用하지 않는것이다. 社案이 어떻던 統一案 을 準用하여야 될 일인데, 이케 奇怪스럽게도 「중」 「从」두 바침만을 準用하지 않음은 무슨 理由인가? 그는 公約을 잊었음도 아니고, 活字——經費關係도 아 닌을 나는 밝혔다. 다만 主腦部의 主義上으로 因하 여 망서리는 꼴 같으니, 이케 「중」 「从」의 不採用 理 論의 絶對不可論을 말할 必要는 없으나, 同一系統의 新東亞 新家庭의 그것을 엿보아도 徹底한 同一方針 일데도, 이와 달리 地方 記者의 記事 原稿까지도 私案 으로 고쳐버린다는 일은 참으로 理解 못할 일이다. 무론 他新聞과는 同一에 論할바는 아니나, 内幕에 품 는 두가지 小異는 우리로 하여금 東亞報에 對한 最 大의 遺憾이다.

東亞여! 小異를 버리고, 公約을 좇아 同一로 나 아가자! 그리고 完美를 皮함으로되 그 아가움을 없 애주었으면……

**朝鮮中央日報** 가 มาตรฐาน을 準用하기는 내가 늘 接 觸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날자를 밝 히 記憶하지 못하나, 시재 มาตรฐาน을 準用함에 있어 서, 質的으로는 三新聞中 第一이다. 곧 同報의 社說 과 照魔鏡 記事만은 (間或) 그릇된 綴法이 있음은 共

通된 例外이나) 他報에 類例가 없는 徹底도 오직 中 央만이 가진 特點이요 자랑이다. 그 밖엔 (政治 經 濟 社會 學藝欄) 다만 「짜거들」 곧 並書式만을 準用 하는중인데, 同報와 같은 系統의 雜誌「中央」엔 徹 底한 準用等 事實도 이루어볼지라도 中央도 不遠間 東亞와 같이 全紙面을 通하여 準用 實施할 途程에 있 다고 하겠다. 무엇보다 同報 幹部 諸氏가 新綴字에 對하여 「한글」을 通하여 말승한 事實도 보아도 明 白하다. 무론 이를 實現함에는, 活字等 改正으로 因 하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를것이나, 오리 語文의 統 一運動의 큰 뜻을 생각함에서, 하루바삐 全紙面을 通 하여 準用 實施할 때가 돌아오기를, 衷心으로 빌고 바라는바이다.

**朝鮮日報** 한글 มาตรฐาน과 가장 密接한 關係를 가 질듯이 보이면서도, 그 實際에 있어선 가 장 無誠意하게 보이는것은 朝鮮日報다. 또 朝鮮의 三 新聞中 綴字 改正에 있어서 가장 落伍者요 熱이 없 는자도 朝鮮日報다.

돌아보건대, 朝鮮語學會의 「한글 มาตรฐาน 통일안」의 發布를 前後해서 가장 많이 떠들었던것은 朝鮮日報였 으니, 或은 社說로나, 其他 形式으로 綴字法 統一의 緊急性을 말하였고, 或은 한글 愛用運動을 提唱하였 고, 或은 普及의 信條를 들어 그 實用을 促進하는



등 五六회에 미치어 論學하여서, 그 支持 準用을 從 憑한것도 朝鮮日報였다. 이리하여 그 熱烈한 灼熱의 度는 大衆으로 하여금 不日에 綴字를 率先 改正하려니 期待를 가지게 하더니, 그 期待는 헛된 期待였었다.

그뒤 首腦部의 更迭이 있는 뒤로는, 그 前에 熱烈하던 論學조차도 찾아볼수 없을만치 식어져버렸음을 看取할수 있었다.

그러자 東亞日報 등이 活字를 改正하면서 綴字法을 새로이 하며, 其他 刊行物이 이에 追從하는 形勢였으니, 이에 朝鮮日報도 一部 綴字法을 使用하게 되었다. 곧 오늘날까지 芻오는 並書式만을 準用한 것이었다. 以來 아모리한 誠意와 進展을 볼수 없으니, 同報는 우리의 三新聞中에서 落伍를 自取함이 滿足인것 같이 보인다.

그러면 옛날의 그 熱烈하던 態度에서 言而不行하는 까닭은 那邊에 있을까? 或은 經營者의 文化的良心이 缺乏한 탓일까? 무슨 일이고 朝鮮第一을 말하며, 더욱 人物들을 자랑하는 同報이니, 그럴 일도 없을것이리라. 그러면 或은 現 首腦部는 綴字法의 簡易化를 말한 事實이 있음을 미루어보아, 「마춤법」은 繁雜을 일삼은 것이거나 하는 생각에서 新綴字法을 不肯하는 탓일까? 적어도 朝鮮의 文化를 云云하는 同

報의 經營者로서는 이같은 認識不足은 아니리라. 그러면 或은 幹部되는 自身이 綴字法을 모르므로 하여, 이를 忌避할일까? 社會의 公器性을 부른짓는 同報로서 그같은 私的感懷는 一系도 不容일터이리라. 그러면 或은 가장 實地的인 經費關係로 因할일까? 五十萬圓의 財團을 社說도 자랑하며, 社屋의 宏大함이 朝鮮第一이라 自言하는 同報로서 活字 改正쯤에 드는 돈 없다 할가. 더욱이 同類인 他新聞은 母論 朝鮮의 刊行物이 舉皆 綴字를 改正하는 現勢임에서 唯獨 同報만이 事情不許하리라는 理論은, 到底히 되지 못하여서라! 그러면 或은 同報의 態度가 近這에 勇斷의임을 보아, 現在의 並書法만으로서 訓文期를 삼다가, 時期方熟을 엿보아 一舉에 他社의 追從을 不許할 徹底를 보이렐일까? 그러나 이는 客觀的으로 容納 못할 事理이리라. 綴字法에 對한 訓文期는 이미 지나 벌서 第二段의 으로 들어가는 때이며, 또한 時期를 기다리려한다면 남이 開拓한 땅에 심을줄만 알고, 케스스로 未墾地를 開拓할줄은 모른다는 格일 것이니, 이러한 奸邪한 생각이란 오늘날 朝鮮의 言論機關으로선 容納지 못할 일이라. 그러면 或은 前 這에 東亞日報가, 新綴字의 使用을 시작하였을 때, 過度期的 現象으로 因한 한 때의 積은 影響이 있었음에 비취어, 新綴字法 使用은 自身の 營業政策上



不利를 招致하리라는 見解에서일가? 아니리라. 그는 單純한 營利機關으로서면 容或無怪일지나, 적어도 어 뎡다는 言論機關으로서는 敢히 取하지 못할 態度일 뿐 아니라, 步調의 同一과 協調를 버리고 單獨을 즐 기며 自我의 巧利만에 사는 格일지니, 斷然 그럴리 도 아니리라. 그러면 과연 그 어떠한 뜻을 內包함 으로써, 한글 統一運動에 있어서, 말과는 어긋나는態 度를 取하고 있는가? 우에 든 여러가지 根據에 基 因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意識的 根據로 일가? 이에 이르러서는 다만 異常한 느낌을 가지게 할다름이다. 그러나 케아무리 거기에 대한 辯解가 있을것이나, 어뎡든 客觀的으로 觀察할 때에, 朝鮮日報은 온전히 우리 語文運動에 協調의 精神이 없고 誠意가 없다 는 斷定을 무엇으로 否認할것인가? 辯明할것인가? 朝鮮日報여! 그 雄壯한 外形과 한가지로 內形도 整 頓하여서, 朝鮮第一을 자랑하여도 부끄러움이 없게 雙 손을 期함으로서, 우리 文化運動에 同一, 協調도 나 아가지 않으려는가?

### 諸雜誌

끝으로 「마춤법」을 通한 諸雜誌의 面影을 一瞥하고저 한다. 한말로 다한다면, 朝鮮의 雜誌는 九十九%까지는 完全한 統一案 그대로를 準 用하고 있는 現狀이라 할것이다. 雜誌로서, 아니 우 리말 刊行物로서, 「마춤법」을 가장 먼저 實行한것은

아마 옛날의 東光이라고 믿는다. 그뒤 新東亞 新 家庭이 改正綴字를 使用한대 뒤따라, 諸他 雜誌가 舉 皆 準用하여가는 形便이니, 지금 여러 雜誌를 한손 에 볼수 없이, 그 內容을 밝히 알수 없음을 甚甚 히 아나, 大體로 보면, 新東亞 新家庭 中央 學燈 農 民生活 新生 新人間 아이생활 어린이등을 비롯하여 實生活 新人文學 四海公論 基督申報 聖書朝鮮 神學 指南 神學世界 信仰生活 農民旬報 前線 黨聲 天道教 會月報 其餘他의 雜誌도 거의 新綴字法을 準用하게 되 었다. 오직 三千里等 몇개의 雜誌만이, 아직 變변치 못한 現狀이다. 여기 特記할 點은 漢城圖書株式會社 印刷의 雜誌는 모두 新綴字요, 同社 出版의 學燈雜 誌는 「마춤법」 그대로운 點에서, 同社 印刷部의 努力 을 짐작할수 있다. 이와 같이 한글 統一運動은 거의 完成의 域에 다다랐다는 느낌을 가지게 함이니, 實 로 기쁘고 유쾌함이 여기에 지날자 있으랴?

### 맺음말

의로움이 성한 社會는 맑고 깨끗하게 바두잡혀 갈 것이며, 團結과 協調가 굳은 社會는 힘찬 進展이 있 을것이다.

적어도 우리말 出版物의 經營者의 文化的 良心과 結束은 우리 社會에 있어서 高貴한것이다. 남의 먼



커 많은 일이 私利的 맛스럽지 못하였다고 自己는 그 길을 十取하기를 꺼리며, 一部階級에 阿諛하거나, 過度한 巧利主義만으로 取할바 使命을 背버리거나, 남이 하는 일이니 自己는 그대로 양으리란 망녕된 自尊心으로서, 單獨行爲를 自取하는 왜드러진 마음씨를 가지거나 하는이 있다면, 이는 적어도 大衆을 손알에 이끌며 우리의 文化事業에 寄與하겠노라는 音論機關의 經營者로서는 取하지 못할바일 것이다. 만일 이런이 있을진대, 남의 努力으로 因한 成果를 보기도 기뻐할 자격이 없으리라.

朝鮮의 言論機關이여! 우리 語文運動의 重要性을 再認識함으로써, 다 가지 힘을 습하여, 좀 더 熱있고 誠意있는 責任을 다하자. 그리함에서 우리의 뜻은 이 루워질 것이며, 그로 因한 훌륭한 열매를 볼수 있을 것이다. 이는 事物의 어더함을 莫論하고 取한 우리의 態度일 것이다. 또한 그리함이 自身을 爲함이 될 것이다.

(六頁에서 繼續)

무슨 까닭으로 그들이 달리 기념일을 정하련하는지, 우리는 그 심리를 알수 없다. 네가 장이야 하니까 나 도 군이야 하는 셈인지? 네가 등에 서니까 나는 서 에 서겠다 하여, 은연하 어느 기관하고 대립되어 지기를 스스로 바라며 즐기려 함인지? 그 앞은 술책을 버리고 대동일치하려는 아량(雅量)을 가질 생각이 없는가.

오십년만에 완성된

프랑스말 사전

프랑스국 한림원(翰林院)은 쾨셰기(前世紀) 후반 곧 一八八五年 십일월 오일에 쾨일회 사친편찬 위원회를 열었으며, 이때 만 사십구년 열달후인 지난 구월 오일에 겨우 최신불어사친(最新佛語辭典)이 완성하였다 한다.

프랑스 한림원 간행의 사친으로는 이것이 쾨 팔회째로서 一八七八년 간행판을 다시 증보 개 정한 것이다.

이 한림원의 프랑스말 사친 간행의 역사를 보면, 십칠세기때에 창립한 후 사친을 지난 一六九〇년에 간행한 것이 최초로, 다음에 십구세기중에는 一七一八年, 一七四〇년, 一七六二년, 一七九八年 사친을 공하여 개정하고, 십구세기에 들어서는 一八三五년에 쾨六회, 一八七八년에 쾨七회의 두번 까지 쾨편찬을 행하여 금일에 이르러 겨우 금 회 오십 칠년만에 쾨팔회 개정 간행이 된 것이다.



# 독자의 소리

이欄에는 讀者 諸氏로서 어떠한 意見이든지 다 發表할수 있습니다. 提議나 反論이나 무엇이든지 써 보내시오.

## 金鳴鎮氏에게 反省을 促함

—京城 發音을 좃으려는—

李 錫 麟

요사이 朝鮮語學研究會라는 語文研究의 機關이 새로 생겨서, 朝鮮語學會의 主張과 달리하여, 이리구 저리구 하던 남아에 僻경 感情的으로 學族的 統一案을 反對한다는 風說이 나타나기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그런 風說이 우리 學界에 있다는 것만이라도 못내 심심히 여기는 자다. 부엌에 나가면 메느리 말이 옳고 방에 들어가면 시어머니 말이 옳다는 말이 있다. 그대 一方 主張만 가지고는 그 可否를 알수 없겠는고로, 正音誌

는 勿論 한글誌 其他 語文에 關한 書籍을 愛讀하여온 結果, 朝鮮語學會 主張이 正當함을 認定하고 배우고 實行에 힘쓰고 있는 자며, 朝鮮語學研究會에서 文法學과 聲音學上 一般 原理를 한결음만 더 깨쳤더면 誤解를 일으키지 않아 우리 語文統一의 걸음이 하루라도 빠를것을 하고 直接 나서서 말한적은 없었지만 늘 願하여온 자다. 去五月에도 正音第七號를 사가지고 와서 모주리 읽었다. 그중에도 「朝鮮語學會 公開狀에 對하여」라는 題目에 와서는 더 한층 緊張裏에 읽었다. 가슴 쓰라린 일도 많았다. 그러나 意見이 다름만 恨嘆한뿐이오, 오늘날까지도, 朝鮮語學研究會에서는 感情으로 反對한다고 믿지 않는다. 다만 意見이 다름만 恨할뿐이다. 이 點을 바라 보기를 바란다.

「자척조주시」를 좃으려는 사람입니다. 그런즉 感情이고 무엇이고가 어디 있겠읍니까. 다만 新綴字法 卽非歷史的인 硬音雙書式과 發音不能의 雙바침等に 當하여 反旗를 들뿐입니다. 京城發音을 좃으려는 사람입니다. 의 句節에 가서는 참 當然한 말이 라는 소리가 나오는 同時 놀래고도 분이 넘쳤다. 그리고 公公히 생각하여 보았다. 그러나 筆者의 둔한 뇌로서는 理解할수 없었다. 무엇때문에 京城發音을 좃음이 語文統一上 合理하다고 認定하면서, 朴勝彬氏를 흉내내는지? 한번 質問하고자 붓을 들었었다. 그러나 한글에 門外漢이요 게다가 둔한 붓끝이다, 그만두고 이때까지 왔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世上에서 아무 말이 없으며, 全民族이 使用할 綴字法에 關係됨을 생각할 때 어느 거를에 이것 커것 가리랴. 拙筆을 무릅쓰고 이 붓을 들게 되었다. 歷史的 記寫法을 버리고 朝鮮首都의 京城 現時 發音을 中心으로



整理한다는 것은 朝鮮語學會에서發表한統一案이 그렇게 되고,社會有識人士들의認定하는바며,綴字統一이 되어있는 歐米의 正字改正論이 무엇보다도 雄辯으로 證明하는바가 아닌가.

學術 研究와 討議는 自由라는데 무슨 權力에 依리어 또는 朴勝彬氏의 學說의 信奉者니까 在下者는 有口無言이란 格으로 京城 現時 發音을 中心으로 整理함이 옳겠다고 그것만 反對할수가 없어서, 京城 發音을 좇을 의향을 가지고도 京城 發音 中心으로 된 統一案이 나오고, 또 一般有識人士들의 認定하는 오늘날에도 할수 없이 盲從하며 統一案을 反對하는가? 朴勝彬氏에게나 一般 社會에 對하여 京城 現時 發音으로 整理함이 옳다고 論駁하고 提唱함이 二十世紀의 正義를 가지고 尠우는 男兒며, 우리 民族의 福利를 위하여 奮闘努力하고 語文 研究 整理하는 正當한 學者며, 氏의 가질 態度이어야

하지 양젓는가? 京城 發音으로 整理할 의향을 가지고도 朴勝彬氏를 흉내내어

아오는 同時。너허주디 아니함으로 雙바람。翰旋인디。하얏디마는。맛나디 못함은。이슬는디。니를러이면。지나디 못하는。虛妄한디。맨드러나하는。업디요 (現在 살아있는 말까지도 달리 쓰는 것도 있음)

等으로 表記하니, 氏의 귀에는 京城 現時 發音이 右와 같이 들리는가? 그렇게 發音하는 地方이 많으므로, 全體를 代表하기 위함인가? 一部地方에서 發音하는 것이지만, 標準語 될 만하여서 그렇게 쓰는가? 文法學과 聲音學上 꼭 고대로 하여야만 合理할 眞理나 眞은 理由가 있는가? 더 論議할 여지가 있어서 保留하는가? 筆者는 민노니, 한 言語의 統一을 피하려면 아무래도 그나라 政治 文化 交通等의 中心地方의 言語로써 標準語를 삼고, 그 밖에 方言은 얼마큼 犧牲되지 않을수 없는것은 天下共

通의 事勢。다그래서 氏도 同意하는 줄로 믿는다。京城 發音으로 語文 整理함이 合理的이라고 認定할진대, 所謂 硬音雙書와 雙바침은 不可하다고 認定하니까, 朴勝彬氏說을 主張하겠지만, 例를 들면 「地方, 到底, 電燈, 商店, 題目」等을 「디방, 도더, 던등, 상덤, 데목」으로 하는 歷史的綴字法을 버리고 政治 文化 交通等의 中心地인 京城 現時 發音인 「지방, 도커, 켌등, 상침, 케목」으로 하고, 한결음 더 나가서 「天地, 鐵道, 添付, 身體, 來日, 女子, 良心, 歷史」等을 歷史的記寫法을 버리고 京城 現時 發音인 「천지, 철도, 첨부, 신치, 내일, 여자, 양심, 역사」等으로 함이 語文 統一上 合理하겠다고 우리의 앞잡이로 나서서 부르짖으면 어떡하며, 또 못할망정 京城 發音으로 整理한 統一案을 反對할것이 무엇인가? 通俗的이니 平易니를 主張하는 朝鮮語 學研究會에서 標準語의 資格이 있는 京城語(京城語라고 다 標準語된다는



것은 아님)의 發音과 다를 개치가  
와 使用에 不便한 記寫法을 主張하  
며 京城 發音을 좇을 의향을 가진 氏  
가 무엇때문에 主張하며 統一案을 反  
對하는지? 아마만 생각하여도 眞  
意를 알기 어렵고도 의심된다. 우리  
語文에 뜻둔이로 그렇게 생각 아니  
할자 있으라? 그렇지 않으면,

「周時經의 學說을 宗主하면서 그  
法則을 달리함은 스승에 對한 反逆  
이요」라고 宗主하는 學說이면 조금  
도 달리하여서는 안된다. 꼭 고대  
로 흉내내어야 한다고 周先生의 것과  
는 조금 달리 「한글 맞춤법 통일안」  
을 制定 發表하였다고 朝鮮語學會를  
批評하는 某氏와 같이(周先生의 것이  
完全하고도 完全하여 손대일대가 없  
는데, 부질없이 會合을 하느니 討議를  
하느니 하여 도리어 그대로 있느니  
만 못하게 되었다고 責하는 것인지  
는 모르지만) 宗主하는 學說이면 된  
것 아니된것 할것없이 꼭 그대로 흉  
내내어야 하다는 그런 沒批判 非學

者의 心理를 가지고 朴氏를 흉내내  
는 것은 아닌가? 神이 創制한 綴字  
法이기 前에야 全民族이 使用할 綴  
字法을 輕하게 一個人의 學說만 가  
지고 滿足하겠는가? (一個人의 案으  
로 綴字 統一이 된 實例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周先生의 學說이라도 非合理的인 部  
分이 있다면 取하지 않아야 할것이  
고, 同輩나 後輩의 發見과 主張이라  
도 合理하면 取하여야 하지 않겠는  
냐? 그런 態度도 研究와 統一을 目  
的하는 朝鮮語學會니까, 十八人의 委  
員이 一百 二十五回나 會合하여 統  
一案을 制定 發表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周先生의 것 그대로 흉  
내내었을 것이다. 朝鮮語學會라도 朴勝  
彬氏의 主張에 合理하다고 認定하는  
것이 있다면 取하여야 옳을 것이 고,  
朝鮮語學會 主張인 現時 京城 發音  
으로 整理함이 옳겠다고 認定하니 取  
하여야 正當한 處理가 아닐가? 派  
別的 觀念을 가지고 朴說이니 周說

이나 하여 異說派의 主張이라고 取  
하여야만 할것도 反對하고 取하지 않  
아서야 學者의 態度며 또 되겠는가.  
무엇이든지 公平正大로 處理하여야  
할줄 안다. 하물며 全民族이 日常  
使用할 綴字法임에야? 그럴즉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周先生이나 어느  
專門家가 獨特히 主張하는 私案도 아  
니요, 이 方面 專門 知識이 있는 多  
數의 學者가 長久한 時日에 여러 意  
見을 綜合하여 이루어진 即 全體를 代  
表할 統一案이 된것이고, 한번 世上  
에 發表하며, 教育界 宗教界 言論界  
等 各界에서 統一案에 좇아 우리글  
統一의 氣運이 濃厚한 오늘날 全民  
族이 使用할 綴字法이란 얼마나 重  
大한 것인데, 京城 發音으로 整理함이  
語文統一上 合理하다고 認定하면서 朴  
勝彬氏를 흉내내고 反對하는가? 가  
령 朴勝彬氏가 雙바침과 所謂 硬音  
雙書를 認定하고 쓰신다면 또 흉내  
내려는가? 氏께서 眞理라고 믿는 限  
아마 盲從할수 없을것으로 믿는다.







늘, 아래로 紅葉이 깔리게 될 생각만 하여도 마음이 爽快한 그야말로 讀書의 適宜한 時節이 닥쳐오지를 않았는가? 讀者 여러분은 말할 것이 없으나, 讀者 아닌 朝鮮靑少年이니 누구에게든지 매미우는 이때를 놓치지 말고, 한글의 理解를 놓여 주는 同時에 專心努力하여 한글 공부 우리의 산 글을 읽게 함이 讀書의 急先務가 아닐가 한다.

우리 朝鮮사람은 이것을 알기도 전에 먼저 남의 것에 발을 넘겨 디디려 하는 心理가 濃厚한데, 그러므로 成就에 困難함은 定한 理致이고,

于先 順序로서도 容恕할 點이 없다 하여도 過言이 아니겠다. 이것이 나의 失責이 아니라 할 것이며, 朝鮮社會의 羞恥가 아니라 하라? 이러한 例는 朝鮮외보담 이 땅에 와서 많이 體驗 하는데, 여기 와서 「일본 글 읽지 않고 조선글 읽다니」 한글의 關한 書籍을 볼 때마다 이 種類의 말 들은척이 한두번이 아니었다는 것을 일러 둔다.

우리글을 사랑하고 支持한다면 좀 더 널리 이 동무로부터 커 동무, 그리고 온村中 다 率先하여 서로 다투어 가며 「한글」外에 張志暎先生

著書 朝鮮語 綴字法講座 이러한 것을 精讀하게 하며, 또는 가르켜서, 맑고 맑은 이 가을날 밤에 都市이면 電燈밑, 農村이면 램푸밑에서 한글 읽는 글소리가 三千里 江山 坊坊谷谷에서 頻頻할 때면 半島에 꽃이 필 것이며, 朝鮮을 살려가는 幸福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이것이 工夫로서의 先後를 말한 것이며, 讀者 여러분은 一大奮發하여 李允宰先生 님께서 「한글」이 달마다 絶品되어 머리를 긁어가며 절절 해매는 꼴을 보게 함이 어떨가요? 營利를 圖謀하여 하는 말 아니임을 믿는다.

# 特 告

한글 統一의 途程에, 一方으로 沮害를 敢行하는 少數 反對分子가 없지 아니합니다. 그는 과연 무엇을 主張하는가? 어떠한 術策을 쓰는가? 그 肺肝을 들여다보듯 알고저 하시는분은 本會로 통기만 하시면 책 한권(本誌 三月號)을 送부하겠읍니다.

朝鮮語學會



指 ◇ 導 ◇ 例 (13)

京城女子師範學校

沈宜麟

一、教材 二十六 불방아

「방아 방아 불방아야,  
쿵쿵 찢는 불방아야,  
너의 힘이 장하구나.  
폭포 같이 쏟아지는 물에,  
떨어지는 공이 소리,  
철새업시 울리면서,  
한심 두심 짜여내니,  
白玉 같은 흰 쌀일세。」

二、要旨 文學的 教材로 農村이 아니면 볼수 없는,

불방앗간에서 쌀 짜여내는 貌樣을 보고 부른 노래이다. 本文을 讀解함에 依하여, 불방아를 理解하고, 홀러떨어지는 물의 힘으로 방아를 움직여서 쉬지 않고 그해에 收穫한 穀食을 맛있게 짜여내는 근경을 맛보여서 文學的 趣味를 養成할것이다.

三、教授要項

1、文……이 글은 農村 불방앗간에서 일을 하는 사

람이 읊은 노래 같치 보인다. 가을에 익은 穀食을 건어들인 뒤로 시골 平野는 쓸쓸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後 늦은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홀로 農村의 氣分을 자랑하고 慰勞를 주는 것은 여러 귀귀서 울리는 불방아일것이다. 쏟아지는 물소리 쌀을 찢는 공이소리 번갈아가며 「찰」갈 「빠」걱, 철석, 쿵」한다. 참으로 불방아의 音樂이야 듣기도 조라. 길을 가다가 이것을 본다면 自然 발을 멈추지 아니치 못할것이다. 여름에 農事지은 벗심을 묘에 차노코 방앗간속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사람이야 엇지 노래가 아니 나올것이라. 이 불방아의 쌀짜여내는 것을 바라보며 읊는 童謠일것이다. 卽 불방앗간에서 일하는 사람이 방아의 쉬지 안코 쌀 짜여내는 모양을 보고 불방아의 힘을 장하게 여겨서 부르는 노래다.

2、節意

第一節 물의 쏟아지는 힘으로 방아가 힘있게 쿵 쿵 짜여나가는 힘이 장하다는 뜻.

第二節 조금도 쉬지 안코 조은 쌀을 작고 짜여낸다는 뜻.

3、語句……불방아(물의 힘을 리용하여 찢는 방아). 쿵쿵 방아 찢는소리. 찢는(방아를 나려트리는 모양)



힘(기운)。장하고나(매우 용하고나)。꼭포(홀트는 물이  
잡작이 떨어져 쏟아지는것)。쏟는물(나려붓는 물)。공이  
(쌀을 찌는 토막)。실새업시(놀름업시)。올리면서(부딪  
어 소리를 소리를 내면서)。짚(짚으로 만든 쌀넛는 그  
릇)。白玉(하얀옥)

4、新字……콩, 싹, 힘, 꼭, 쌀, 쌀, 찌, 백

5、漢字……白(흰백), 玉(옥옥)

6、綴字와 發音……찌는, 갈치(가치), 쏟는(쏟는), 올  
리면서, 같은(가튼), 장하고나, 업시, 두심

7、插畫……엇던 시골村 洞里 들어가는 어구 길옆  
개천가에 잇는 불방앗간갈치 보인다. 방앗간에서  
쌀을 찌는 방아主人은 바람을 쏘이려 나와 천것  
같다. 이때이 불 쏟아지는 貌樣과 공이 올리는  
근경을 노래부르는것 같다.

#### 四、時間配當(二時間 取扱)

第一時 讀法練習、第一直觀、內容吟味

第二時 文意確認、形式美의 吟味、味讀練習、全文暗誦

#### 五、指導過程 大要

##### 第一時

1、自由讀……新出字 新出語를 調查하여가며 文意  
를 생각한다.

2、指名讀……五六名……發音 訂正

3、新出字와 注意할 綴字의 板書取扱.

4、範讀……讀調와 語調의 示範。

5、指名讀과 齊讀。

6、생각한 文意의 發表……엇던것을 노래부른 글  
인가 엇던 마음을 노래부른것인가.

7、大意問答……무엇을 보고 지은 글인가. ……글을  
지은者는 누구일가. ……엇던 근경을 쓴것인가.

8、節意의 取扱과 內容吟味……掛圖의 取扱. ……語  
句의 取扱.

9、讀法 練習。

##### 第二時

1、讀法의 練習。

2、節意의 問答과 文意의 確認. ……불방아의 위치  
안코 밧브게 白米를 찌여내는 힘의 장한것을 感  
激한 마음.

3、文의 形式美의 吟味……여덟字 한句, 四句 一節  
二節로 된 童謠。

4、味讀 練習……리듬칼의 讀法

5、全文의 暗誦 練習。

6、自由選題로 童謠를 짓게 한다.



普通學校 朝鮮語讀本 語彙調查

(自卷一至卷四)

教科書와 統一案과의 對照

[7] 李 浩 盛

(통일안 난에는 교과서와 다른것만 적음)

四、二部

교과서	통일안
라디오	라디오
래년	내년
래력	내력
래력(을)	내력(을)
래후년	내후년
략(駱駝(을))	낙타
랭칭	냉칭
랭칭한사람	냉칭한사람
량객	양객
려객과	여객과
려관	여관
려관에	여관에
례(禮)	예
례를	예를
예들	예들

예들	예들
예식	예식
예식이	예식이
예철	예철
연락선	연락선
연습	연습
령감	영감
령장(靈長)	영장
령장이라	영장이라
로쇠아	노쇠아
로인	노인
로자	노자
로자도	노자도
로업	노업
룩음	녹음
롱궁	용궁
류(類)	유(類)
류가없다	유가없다
류리(琉璃)	유리
류리반에	유리반에
류청과	유청과
류수(流水)	유수
류수도다	유수도다
류(六)	육
류컨이올시다	육컨이올시다
류컨하고	육컨하고
륙상(陸上)	육상
륙지	육지
리(利器)	이기
리롭다	이롭다

리롭게함이	이롭게함이
리언(俚諺)	이언
리태백(李太白)	이태백
리태백이	이태백이
린색(吝嗇)	인색
림신(立身)	임신
림신하기가	임신하기가
五、口部	
마고따다	
마고따서	
마당	
마당에서	
마라	
마루	
마리	
마시다	마시기도하여
마시기도하야	
마을	
마을에도	
마을에는	
마을사람들이	
마음	
마음껏올시다	
마찬가지	
마찬가지올시다	
마추다	
마추는자	
마치다	
마치고	
마치	







머루  
머리  
머리는  
머리를  
머리우의  
머리켜어  
머슴  
머슴을  
머슴의  
머슴이  
머다(擔)  
머고  
메돌(米突)  
메밀(蕎麥)  
메추리(鶉)  
먹(墨)  
먹다  
먹으오  
먹으면  
먹어야한다  
먹어야합니다  
먹었습니다  
먹었다는말을  
먹으시오  
먹으려옵니다  
먹을뿐아니라  
먹을것이  
먹는단말이다  
먹은탓으로  
먹먹하다

먹었습니다  
먹었다는말을

먹먹하여  
먹히다  
먹히기가  
먹혀본척도  
먼저  
먼저사람  
멀다(遠)  
멀고먼  
멀리서들  
멀지아니한곳  
먼산에는  
먼곳으로  
먼곳까지  
먼곳의  
먼뎃사람  
멜대(木刀)  
멈추다  
멈추었다  
멈춥스리  
멈춥  
멈춥하얏다  
멩살  
멩살로는  
멍멍(吠聲)  
멍하다  
멍하니  
먹먹하여  
멈추었다  
멈춥스리  
멈춥하얏다



青年常識叢書

朝鮮歷史	西洋歷史	世界地理	政治篇	經濟篇	法律篇	哲學概論	社會學	人體生理	家庭衛生	新體書翰文	朝鮮語文法	朝鮮語綴字法	物理學	化學	商業
定價	定價	定價	定價	定價	定價	定價	定價	定價	定價	定價	定價	定價	定價	定價	定價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한 글

바루 집아 쓰기

익 힘

옆에 쓴 것  
이 바른 것  
이를 꼭 때  
자매자 맞  
후어서 보  
시오

# 신기한 소

솔러얼 부인 지음

옛날 아일란드의 풀은 들 가운데  
 대 사람의 작은 부락이 살았었다  
 눈자위 검은 여자도 있고, 튼튼하  
 고 쾌활한 산애도 있었었다. 또 거  
 기는 어린애가 우글우글 끓어쳐,  
 어느 집이고 즐잡아도 여섯씩은 있  
 었다. 그러라고 수에 무슨 케한이  
 있는건 아니다. 이 동네의 큰길  
 그것도 오죽 직 하나뿐이 아니라

어려가 노라면, 문앞에 황금빛의 머리  
 칼이 번쩍이는 아름다운 대가리를  
 열 들 가량은 어렵잔케 볼수 있었  
 다. 그리고 동네에 처 볼수 잇난 황  
 금이라야 단지 이것밖에 업다.  
 그것은 그러타 하고, 이 동네일  
 지라도 아일란드의 다른 촌과 그  
 리 판이 한것은 업섯건만, 다만 어  
 나 때 이상한 일이 이터났을뿐이  
 다. 그것은 어느 흥년 기근과 열  
 병이 맞치 두마리 셋말간 이리 갖  
 이 온 나라를 거칠은 씨이였다.  
 아춤다 촌 사람들이 눈을 뜨면  
 꼭 이런 말을 하얏다.

「아모리한들 이보다 더 나쁘게 될  
 수야 업겠지」  
 그러나 형편은 작구작구 말뭇되  
 게 되얏다. 마춤내 밧헨 감자가 알  
 알이 곱아 틀어 간  
 소란 암소가 한마리 밧기 안이 남  
 고, 모소리 곱머죽었다. 그래, 그 하  
 나 남은 암소가 동네의 아기들을  
 기르 길으기 곱곶하얏난대, 이것을 자랑  
 으로 삼다가, 마춤내 자부(自負)란  
 병이 걸려 죽어 버렸다. 이 병이 드  
 렷다고 사람이야 죽지 안치만은,  
 등불에겐 생명이 왔다갓다 하난  
 까 답이다.



그래, 이 마<sup>지</sup>막 암소가 죽어바  
리자, 아일<sup>란</sup>난드의 풀은 들들은 문  
득 암담한 슬<sup>품</sup>숨에 차히고 말<sup>았</sup>다.  
산애는 녀<sup>여</sup>편네로 해<sup>쳐</sup>서 울고, 녀<sup>여</sup>  
넨<sup>는</sup> 어린애로 해<sup>쳐</sup>서 탄식하며, 그  
리고 어린애들은 밤<sup>낮</sup>보치<sup>었</sup>다.  
그<sup>지</sup>를 즈음에 세<sup>상</sup>에는 신<sup>기</sup>한 일  
이 생<sup>기</sup>었다. 줄<sup>린</sup>애들의게 에워차  
힌<sup>여</sup>녀편네들이 유<sup>약</sup>한 갓<sup>난</sup>이를  
피<sup>지</sup>피<sup>지</sup>말은 가<sup>삼</sup>에 꼭<sup>꺼</sup>안고  
문<sup>간</sup>안에 앉<sup>았</sup>노라<sup>니</sup>까, 이상한 암<sup>소</sup>  
한마리가 조<sup>조</sup>중<sup>중</sup>용<sup>용</sup>이 거<sup>려</sup>온다. 썬<sup>별</sup>  
은 각<sup>아</sup>놓<sup>은</sup> 상<sup>갈</sup>갓고, 공<sup>단</sup>인가  
의<sup>심</sup>할<sup>렐</sup>은 황<sup>금</sup>처럼 일<sup>광</sup>에 빛<sup>빛</sup>

난다. 청<sup>경</sup>결한 그 몸에는 오<sup>점</sup>침<sup>하</sup>  
나 없<sup>었</sup>다. 그리고 거<sup>름</sup>을 거<sup>를</sup>적<sup>적</sup>  
마다 귀<sup>중</sup>한 것<sup>이</sup> 러<sup>질</sup>싹<sup>한</sup> 유<sup>방</sup>  
으로부터 질<sup>질</sup>홀<sup>은</sup>다. 녀<sup>여</sup>편네들은  
이<sup>광</sup>경을 보<sup>고</sup>, 모<sup>두</sup>망<sup>연</sup>히 청<sup>경</sup>신<sup>신</sup>  
을 일<sup>했</sup>건만, 갓<sup>난</sup>이들은 그 암<sup>소</sup>  
를 향<sup>하</sup>여 고<sup>사</sup>리 갓<sup>혼</sup>손<sup>을</sup>버<sup>버</sup>  
리고 옷<sup>난</sup>다. 그 우<sup>슴</sup>이<sup>란</sup>것이 었<sup>어</sup>  
땡<sup>게</sup>터<sup>케</sup>소리 높<sup>고</sup> 살<sup>가</sup>웠<sup>든</sup>지 윈<sup>체</sup>체  
계<sup>의</sup>갓<sup>난</sup>이도 거<sup>기</sup>피<sup>다</sup>이어 모<sup>모</sup>  
주<sup>조</sup>리 우<sup>서</sup>버<sup>렸</sup>다. 다만 그 윈<sup>체</sup>체  
계<sup>의</sup>우<sup>슴</sup>소<sup>래</sup>를 듣<sup>기</sup>난<sup>이</sup> 갓<sup>난</sup>  
이들<sup>현</sup>이<sup>었</sup>고, 또<sup>도</sup>그<sup>들</sup>은 말<sup>할</sup>줄  
몰<sup>르</sup>는<sup>까</sup>외<sup>담</sup>에 무<sup>슨</sup>일<sup>로</sup>우<sup>섯</sup>난<sup>는</sup>

지 아<sup>난</sup>이가 하나도 없<sup>었</sup>다.  
그<sup>런</sup>데 그 암<sup>소</sup>가 모<sup>난</sup>사<sup>람</sup>도  
없이 홀<sup>로</sup>뚜<sup>벅</sup>뚜<sup>벅</sup>거<sup>리</sup>와<sup>서</sup>집  
앞<sup>에</sup>거<sup>름</sup>을 멈<sup>추</sup>난<sup>것</sup>을 보<sup>자</sup>, 어  
머니들은 우<sup>유</sup>를 얼<sup>으</sup>려<sup>고</sup> 그 암<sup>소</sup>  
소가 녀<sup>여</sup>편네들이, 가<sup>삼</sup>엔 기<sup>배</sup>날  
뛰<sup>는</sup>이<sup>를</sup>안<sup>고</sup>뒤<sup>에</sup>난<sup>것</sup>을 애<sup>들</sup>  
을 끌<sup>고</sup>케<sup>게</sup>로 다<sup>가</sup>드<sup>는</sup>것<sup>을</sup>보  
자, 가<sup>만</sup>히 서<sup>서</sup>큼<sup>족</sup>하고 사<sup>랑</sup>스  
러운 눈<sup>으로</sup>그<sup>들</sup>을 보<sup>고</sup>잇<sup>었</sup>다.  
그<sup>래</sup>녀<sup>여</sup>편네들은 한<sup>테</sup>영<sup>키</sup>여<sup>어</sup>침  
시와 병<sup>을</sup>채<sup>와</sup>서<sup>는</sup>애<sup>들</sup>을 주<sup>어</sup>  
배<sup>불</sup>니<sup>리</sup>먹<sup>게</sup>하<sup>였</sup>다. 녀<sup>여</sup>편네들이 우  
유<sup>짜</sup>짜<sup>기</sup>에 피<sup>로</sup>되<sup>자</sup>, 산<sup>애</sup>들이 대



신 겁시와 병을 들고, 녀편네들이  
 주린 창자를 채우고 나자, 이번에  
 는 산애들이 병으로 컷을 양엇드  
 이켰다. 그러난 사이에 암소난가  
 만히 서서 연해련방 썸숯난드시  
 컷을 즐니고 잇섯다. 동네 사람들  
 은 아모리 썸도 그 컷이 다하지  
 안난것을 보고, 이것은 필연 그췌  
 암소가 아니라, 췌 건너 산에셔길  
 을 잃고 나려온 신령스러운 암소  
 거니 하얏다. 그리고 이 암소난 래내  
 일은 가바리려니 하얏다. 그러나 밤  
 과 갖치 그 암소난 간곳이 없엇  
 다, 아츰벗치 썸을르자, 그 짐승

은 그촌사원 근쳐 들판에셔 풀  
 을 뜯터먹고 잇섯다. 또 녀편네들  
 이 달져드려, 췌의들이고 어린애들  
 이고 산애들이고 배가 볼죽하도록  
 컷을 썸 먹엇건만, 그래도 신긱한  
 그 암소난 그대로 가만히 잇고, 또  
 컷이 마르난 범이 업섯다.  
 이리하야 그 조고마한 촌락은  
 근이 윈나라를 거칠은 썸에도 즐  
 림 입을 면할수 잇섯다. 어린애들은 날  
 로로 노날노살이 췌고 튼튼해쳐셔 드디  
 여어 그 크기로와 아름답기로 아일  
 난드의 어나 디방에도 지지 안케  
 되얏다. 그리된 뒤에도 이 신긱한

암소난 오히려 촌에 잇서 즐기차  
 게 우유를 내여주엇다. 그런데 아  
 직도 오래오래 잇섯스런만은, 무슨  
 잔혹한 사건이 생기어 그 암소를  
 노하게 하얏다. 누구나 다 아난바  
 와 갖치 췌상에난 어나 썸을어나  
 골에나 촌에나 췌가 남보다 뛰여  
 나게 령리하단것을 보이고 심혀  
 한는 허영심 가진자가 잇난 범이다.  
 이 아일난드의 조고마한 풀 푸른  
 썸에도 그런 녀자가 잇섯다. 그녀  
 편네는 가난한 살림을 하고 잇슬  
 썸에난, 안존하고 겸손한분이더니,  
 조곰 형편이 되이고 할일이 적어지



자, 부척 허영심이 <sup>많</sup>만아진 것이다.  
 하루 <sup>루</sup>너편네들이 모하여, 그 암소  
 의 <sup>야기</sup>이약을 시작하여, 그 <sup>젓</sup>것을 암  
 만 <sup>짜</sup>말마르 <sup>안</sup>흠은 <sup>참</sup>으로 신  
 기 <sup>한</sup>일이 다 하고들 <sup>야기</sup>이약을 하  
 고 <sup>있을</sup>잇슬케, <sup>여</sup>너편네 <sup>하나</sup>한아의 <sup>말이</sup>말이 <sup>체</sup>체  
 상 <sup>에</sup>척 <sup>커</sup>암소의 <sup>젓</sup>것으로 <sup>차지</sup>못  
 할 <sup>것은</sup>한 <sup>하나</sup>도 <sup>없</sup>스리라 <sup>하</sup>얏다.  
 비 <sup>록</sup>큰 <sup>바다</sup>가 <sup>마르</sup>는 <sup>잇</sup>터  
 래 <sup>도</sup>그 <sup>암</sup>소 <sup>난</sup>는 <sup>젓</sup>것을 <sup>연</sup>해 <sup>연</sup>방  
 바 <sup>다</sup> <sup>밧</sup>헤 <sup>홀</sup>닐 수가 <sup>잇</sup>스리라. 그  
 리 <sup>고</sup>도 그 <sup>젓</sup>것은 <sup>오</sup>허려 <sup>업</sup>치 <sup>지</sup>지  
 안 <sup>흐</sup>리라 <sup>하</sup>얏다. <sup>이</sup>런 <sup>말</sup>을 <sup>들</sup>고  
 안 <sup>켰</sup>다가, 그 <sup>허</sup>영심 <sup>만</sup>은 <sup>너</sup>편네

가 <sup>벌</sup>떡 <sup>일</sup>어 <sup>니</sup>려서 <sup>며</sup> 큰 <sup>소</sup>래로  
 「그야 그 암소가 큰 바다를 채  
 을 수도 <sup>잇</sup>겠지만, 우리 <sup>집</sup>에 <sup>난</sup>는 아  
 무 <sup>리</sup>해도 <sup>채</sup>을 수 <sup>업</sup>는 <sup>그</sup>릇이 <sup>잇</sup>었  
 담 <sup>니다</sup>」  
 하 <sup>닛</sup>간, <sup>너</sup>편네들은 <sup>모</sup>다 <sup>두</sup> <sup>웃</sup>음을  
 웃 <sup>었</sup>는 <sup>우</sup>첫 <sup>난</sup>데, 그 <sup>너</sup>편네 <sup>난</sup> <sup>그</sup>러면 <sup>나</sup>  
 와 <sup>가</sup> <sup>것</sup>치 <sup>우</sup>리 <sup>집</sup>에 <sup>와</sup>보라고 <sup>하</sup>얏다.  
 그 <sup>래</sup> <sup>모</sup>다 <sup>들</sup> <sup>니</sup>려나, <sup>무</sup>슨 <sup>것</sup>을 <sup>하</sup>  
 난 <sup>가</sup> <sup>하</sup>고 그 <sup>너</sup>편네의 <sup>뒤</sup>를 <sup>달</sup>따  
 아 <sup>갓</sup>다. 그 <sup>허</sup>영심 <sup>만</sup>은 <sup>너</sup>편네 <sup>난</sup>는  
 케 <sup>집</sup>에 <sup>들</sup>어 <sup>가</sup>서 <sup>양</sup>철 <sup>통</sup> <sup>하</sup>나  
 쏘 <sup>내</sup>여 <sup>그</sup> <sup>암</sup>소가 <sup>풀</sup>을 <sup>뜯</sup>어 <sup>터</sup>먹고  
 잇 <sup>는</sup> <sup>들</sup>판에 <sup>나</sup>갓다. <sup>달</sup>은 <sup>너</sup>편네

들은 <sup>웃</sup>으면서 <sup>그</sup> <sup>뒤</sup>를 <sup>달</sup>따 <sup>가</sup>갓다.  
 그 <sup>암</sup>소 <sup>잇</sup>는 <sup>대</sup>에 <sup>다</sup>다 <sup>르</sup>자, <sup>너</sup>편  
 네 <sup>는</sup> 그 <sup>엿</sup>헤 <sup>잇</sup>는 <sup>돌</sup>우에 <sup>걸</sup>어  
 안 <sup>척</sup> <sup>골</sup>돌히 <sup>우</sup>유를 <sup>짜</sup>기 <sup>시</sup>작 <sup>하</sup>  
 얏 <sup>다</sup>. <sup>참</sup>을 <sup>달</sup>따 <sup>싸</sup>스 <sup>한</sup> <sup>아</sup>름 <sup>다</sup>운  
 젓 <sup>것이</sup> <sup>양</sup>철 <sup>통</sup>이 <sup>새</sup>여 <sup>쳐</sup> <sup>작</sup>구 <sup>작</sup>구 <sup>싸</sup>  
 바 <sup>다</sup>에 <sup>홀</sup>넛 <sup>다</sup>. <sup>그</sup>것은 <sup>그</sup> <sup>너</sup>편네  
 가 <sup>미</sup>리 <sup>그</sup> <sup>밧</sup>헤 <sup>구</sup>멍 <sup>을</sup> <sup>뚫</sup>어 <sup>놓</sup>  
 은 <sup>까</sup> <sup>닭</sup>이다. <sup>우</sup>유 <sup>난</sup>는 <sup>소</sup>낙 <sup>이</sup> <sup>갓</sup>치  
 풀 <sup>우</sup>에 <sup>쏟</sup>다 <sup>쳐</sup> <sup>얼</sup>마 <sup>안</sup>이 <sup>되</sup>야 <sup>한</sup>줄  
 기 <sup>우</sup>유 <sup>의</sup> <sup>내</sup>가 <sup>보</sup>야 <sup>케</sup> <sup>들</sup>을 <sup>홀</sup>  
 너 <sup>나</sup>리 <sup>었</sup>다. <sup>달</sup>은 <sup>너</sup>편네 <sup>들</sup>도 <sup>이</sup> <sup>광</sup>  
 경 <sup>을</sup> <sup>보</sup>고 <sup>웃</sup>으며 <sup>쳐</sup> <sup>희</sup> <sup>들</sup>이 <sup>젓</sup>  
 스 <sup>니</sup>, <sup>우</sup>유 <sup>를</sup> <sup>고</sup>만 <sup>짜</sup>라고 <sup>하</sup>얏 <sup>건</sup>



만, 그 태도 그 녀<sup>여</sup>편<sup>는</sup> 오<sup>하</sup>려<sup>죽</sup> 을 힘<sup>을</sup> 다<sup>해</sup>가<sup>며</sup> 우유<sup>짜</sup> 짜<sup>기</sup>를 말 지 안<sup>않</sup>았<sup>다</sup>. 마<sup>침</sup>출<sup>내</sup> 내<sup>가</sup> 강<sup>이</sup> 되 야 어 사<sup>변</sup>으로 넘<sup>치고</sup>, 암<sup>소</sup>난<sup>는</sup> 그<sup>가</sup> 온<sup>대</sup> 서<sup>서</sup> 잇<sup>었</sup>다. 그<sup>리</sup>든<sup>차</sup>, 그<sup>신</sup> 괴<sup>기</sup>한 소<sup>난</sup> 케<sup>케</sup> 몸<sup>의</sup> 주<sup>위</sup>에 넘<sup>치</sup> 난<sup>는</sup> 우<sup>유</sup>를 보<sup>고</sup> 이<sup>상</sup>스<sup>럽</sup>게 생<sup>각</sup> 하고 돌<sup>아</sup>보<sup>아</sup>서, 지<sup>금</sup>까<sup>지</sup> 자<sup>기</sup>가 속<sup>고</sup> 잇<sup>는</sup> 홀<sup>계</sup>를 애<sup>다</sup>랐<sup>다</sup>. 그<sup>리</sup>자 암<sup>소</sup>난<sup>는</sup> 머<sup>리</sup>를 번<sup>쩍</sup>쳐<sup>들</sup>어 세<sup>번</sup> 큰 소<sup>태</sup>로 호<sup>통</sup>하<sup>더</sup>니, 큰<sup>길</sup>을 것<sup>거</sup> 령<sup>지</sup>디 라<sup>스</sup>를 바<sup>라</sup>보<sup>고</sup> 다<sup>라</sup>, 삼<sup>시</sup>간<sup>에</sup> 그<sup>림</sup>자<sup>를</sup> 감<sup>초</sup>아<sup>바</sup>리<sup>고</sup> 다<sup>시</sup>는 나<sup>라</sup>나<sup>지</sup> 안<sup>않</sup>았<sup>다</sup>.

그 암<sup>소</sup>가 번<sup>개</sup> 갖<sup>치</sup> 지<sup>나</sup>갈<sup>케</sup> 갖<sup>난</sup>이<sup>들</sup>은 뒤<sup>에</sup>서 손<sup>을</sup> 버<sup>리</sup>고 우<sup>울</sup> 었<sup>다</sup>. 그<sup>리</sup>고 그 우<sup>름</sup> 소<sup>태</sup>가 었<sup>어</sup> 더<sup>케</sup> 소<sup>태</sup> 리 높<sup>았</sup>든 온<sup>세</sup> 제<sup>의</sup> 갖<sup>갓</sup> 난<sup>이</sup>도 또 썩<sup>한</sup> 텅<sup>다</sup>라 우<sup>러</sup>다. 하<sup>건</sup>

만, 갖<sup>갓</sup>난<sup>이</sup> 외<sup>에</sup>는 아<sup>무</sup>도 그 우<sup>울</sup> 림 소<sup>태</sup>를 드<sup>른</sup>이<sup>가</sup> 없<sup>었</sup>고, 또 갖<sup>갓</sup> 난<sup>이</sup>는 말<sup>할</sup>줄<sup>을</sup> 모<sup>르</sup>는 까<sup>라</sup> 무<sup>엇</sup>노<sup>로</sup> 우<sup>러</sup>난<sup>지</sup> 한<sup>사</sup>람<sup>도</sup> 아<sup>난</sup>이 가 없<sup>었</sup>다.

[물음]

新 ◇ 語 ◇ 公 ◇ 募

受付 氣付 花形 役割 見送  
 乘組員 乗合 跳下 波止場 引渡  
 取消 手配 吹込 拂下 封切

이<sup>런</sup>것<sup>을</sup> 적<sup>당</sup>히 다<sup>른</sup> 말<sup>로</sup> 고<sup>치</sup>어 쓸<sup>수</sup> 없<sup>습</sup>니<sup>까</sup>. 공<sup>공</sup>연<sup>하</sup> 신 문<sup>장</sup>지<sup>들</sup>이 쓰<sup>고</sup> 있<sup>으</sup>니, 매<sup>우</sup> 불<sup>쾌</sup>합<sup>니</sup>다. (춘<sup>천</sup> 신<sup>영</sup>철)  
 이<sup>러</sup>한 물<sup>음</sup>은 단<sup>독</sup> 의<sup>사</sup>로 대<sup>답</sup>함 보<sup>다</sup> 여<sup>러</sup> 사<sup>람</sup>의 의<sup>사</sup>를 중<sup>중</sup> 합<sup>합</sup>이 좋<sup>다</sup> 생<sup>각</sup>합<sup>니</sup>다. 될<sup>수</sup>있<sup>는</sup>대<sup>로</sup> 순<sup>조</sup>선<sup>말</sup>이<sup>면</sup> 좋<sup>으</sup>나, 한<sup>문</sup>으<sup>로</sup> 된<sup>것</sup>도 무<sup>방</sup>합<sup>니</sup>다. 용<sup>지</sup>는 엽<sup>서</sup>에 한<sup>하</sup>고, 잘<sup>맞</sup>는<sup>분</sup>에<sup>게</sup>는<sup>박</sup> 사<sup>를</sup> 드<sup>림</sup>니<sup>다</sup>.

薄 ◇ 謝 ◇ 進 ◇ 呈



로빈슨 절도 표류기 (七)

나는 오래 열대지방에 있어서 그  
기후에 젖은고로, 이러한 치위를 본  
즉 기가 막히나, 그러나 근본이 잉  
글랜드 태생인고로 먼저 일을 생각  
하고 마음을 녹일수 있으나, 금요일  
이로 말하면 눈이 툇인 산을 치음  
보는고로 매우 놀랐고, 또 손가락을  
떼어가는듯한 치위에 매우 고생하였  
읍니다.

우리들은 이곳에 머물러 어느 때나  
산을 라게 뵈를지 기다리고 있으나,  
겨울은 점점 깊어들어가 눈이 더욱  
더욱 심하여지는고로 이리하여서는  
어찌할수 없다고 폰다라비아를 지나  
뿔드를 향하여 해로로 가기로 하였  
더니, 이때 프랑스국 사람 넷이 커  
편으로서 산을 타고 넘어오는지라,  
참 위경을 지나왔군 하고 형편을 물  
어보니, 그 사람이 간절하게  
「네, 우리들은 지로군을 한 사람

테리고 왔소」

하는지라. 내가 있다가

「눈은 어떠한디까」

「눈 말씀이오. 랑계떡으로 넘어오  
는데, 그 근처는 눈이 다 얼어서 인  
마가 라고 다녀도 아무렇지도 아니  
합디다」

「네, 그것 참 좋소구려」

「그런즉 노형네도 산으로 넘어시려  
하거든, 지로군을 하나 일어가지고 랑  
계떡으로 넘으시면 관계중지 않소이  
다」

하는지라. 우리들도 다시 마음에 당  
기지 아니하는 배로 가는것보다 그  
리하는 편이 매우중이라 하여, 마  
침 회청하는 지로군을 불러 산을 넘  
겨 달라고 부탁하였읍니다.

그런데 한가지 어려운 일은 무엇  
인고 하니, 산중에는 맹수가 많이 있  
어 사람을 해하는것이라, 이번에는  
이 근심을 없이 하여야 하겠다 하  
여 여러가지 예방을 하고 또 동행의  
십 이인이 되매, 이 많은 사람이 한

덩치가 되어 지로군을 앞세우고 십  
일월 십오일에 팜퍼나를 떠났읍니다.

코드리드의 편으로 팔십리나 가서 작  
은 내 들을 건너서 큰 벌판에 나  
아와서 곳장 나아가 좌로도 꺾이고  
우로도 꺾부려 얼마있다가 산중턱에  
다다른즉, 랑계떡, 까쓰코안 등 지방  
이 보여 마음이 매우 좋았읍니다.

더욱 앞으로 나아가 프랑쓰국 결  
에 와서는 지로군이 조금 앞치고 우  
리들은 뒤떨어졌더니, 이때 커편으로  
서 늑대가 한마리 뛰어나와 말을  
먹으려고 텨비고, 또 한마리는 나아  
와서 사람을 먹으랴므로 텨비니, 지  
로군이 이 모양을 보고 놀라 육혈  
포를 놓더니, 금시에 소리를 지르면  
서 넘어지는지라. 이때 내가 금요일  
이로 더부러 그를 살릴랴므로 달려  
갈새, 금요일이는 나보다 먼저 달려  
갔읍니다.

이때 지로군이  
「사방남, 사방남, 살려줍소」  
하는지라. 이에 금요일이가 육혈포를



한방 놓아 한마리를 죽인즉, 또 한마리는 총소리에 놀라쳐 달아났읍니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늑대 소리가 나매, 일행이 다 안색을 변하여, 어찌 할줄 모르나 나아갈밖에 길이 없은즉, 하는수없이 앞으로만 나아가는데, 금요일이의 총덕에 지로군이 목숨은 보존하였으나, 늑대에게 팔을 물려 아파 전디지 못하는 모양이러이다.

그러나 늑대쫓은 그리 큰일이 아니라, 더욱 큰 욕을 당하였읍니다. 금요일이가 지로군을 간호하면서 연방 앞으로 나아가더니, 이번에는 공한마리가 나와와서, 우리들을 향하고 오니, 의례히 늑대와 같이 민첩하지는 아니하나, 그러나 오래 주린 끝과 아프므로 매우 겁나더이다.

공은 아까 총소리에도 놀라지 아니하고, 연방 이리로 향하여 오는지라. 금요일이가 이것을 보고 「서방님, 서방님!」 하고 공을 가르치면서,

「한번 공을 놀려주오리다. 공 같

으면 그까짓것 우습지요. 여러 양반네 소일거리를 만드오리다」

하고 공을 향하고 가는지라. 나는 이 말을 듣고 놀라쳐, 「무슨 종작없는 소리를 하느냐. 네가 잡아먹히면 어찌할량으로」 「네, 잡아먹혀요!...ㅎㅎㅎㅎㅎ 내가 잡아먹지요」

하고 금요일이가 장화를 벗고 단화를 신고 장화를 다른 하인에게 내어주고 총을 어깨에 매이고 갔읍니다. 그런데 공은 이것을 보고 놀랐는지 우리들은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지나가려 하더니, 이때 금요일이가 급히 공의 절에 가깝게 가서,

「이 친구 이야기나 한마디 합시다」 하고 바루 사람으로 더부러 이야기하듯하고 돌을 하나 집어서 공의 머리를 때리니, 공이 얻어맞고 노하여 눈을 부릅뜨고 입을 벌리고 눈을 차면서 금요일이에게로 향하여 오매, 금요일이가 우리들 있는대로 오는지라. 그 모양이 마치 우리에게 구

원을 청하는것 같으므로, 나는 총 놓을 준비를 하고 있는즉, 금요일이는 어느 참나무 밑에 가서 총을 땅에 놓고 나무 위로 엉금엉금 올라가고,

공은 그 뒤를 따라와 나무 밑에 와서 인하여 고양이 모양으로 발톱으로 올라가려 하는데, 이때 금요일이는 벌써 절가지로 즐라듯 건드려 이다.

공이 절가지까지 쫓아오매, 금요일이가 「이것 공의 춤추는것을 봅시오」 하고 가지를 위, 아래, 외, 바로 흔들즉 공은 가지에 위태하게 움크리고 앉았는데, 그 모양을 보고 우리들은 웃음을 참지 못하였읍니다.

금요일이가 또 공에게 「자, 이리와 보아라」 하고 더욱더욱 가지를 흔들고, 자기는 침차로 가지 끝으로 나아가 틈을 타 취 뛰어 나렸읍니다. 이것을 보고, 공은 대적이 이미 땅에 나린고로, 돌아가 발톱으로 버티면서 땅으



로 나리려하는것을 금요일이 조금 맛 보아라 하고, 아까 옆에 놓았던 총을 들어 곰의 귀를 향하여 한방을 놓아서 얼른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때 어떤편에서 늑대는 드리울고, 또 커넥이 되어 컴컴하여 오는고로, 곰의 겁질도 벗길 틈없이 급히 삼십 오리쯤 가서, 어느 촌락에 다다랐읍니다. 우리들이 촌까지 가기전에 이상스럽게 앞이 밝은 고로 어이한 까닭인고 하였더니, 가까이 가서 본즉, 촌백성들이 화롯불을 피우고 각기 총검을 가지고 있는지라 그 까닭을 물어늑, 늑대와 곰이 항상 촌에 들어와야만하므로, 버개를 높이하여 잠잘수 없어 오늘밤에 화롯불을 놓고 상직(上直)함이라 합니다. 그 이른날 지로군은 어찌개 상치로 인하여 어찌할수 없이 이 촌에서 치료하게 하고, 우리들은 다른 지로군을 얻어가지고 떠났읍니다. 이 뒤에는 일도상에 달없이 틀두수(프랑스 국 남방에 있는 중요한 도회)를지

나 가리를 거쳐 칼라이쓰에 가서, 배로 또비에 하륙하니, 마드리드를 떠난 뒤로 꼭 석달이 걸렸읍니다.

그 뒤에 뿌리실에 있는 농작물재 배소를 남에게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잉글랜드로 돌아오니, 생각에는여생을 안온하게 마치려 함이나, 그러나 와서 본즉, 또한 마음이 가았지 아니하여, 여러가지로 번민하다가, 다시 마음을 결단하고 뒷일은 친부러 의탁하여오던 과부에게 맡기고 리쓰 본으로부터 뿌리실로 건너가, 또 장사를 시작하였읍니다.

이때에는 처음의 고난 겪던것과는 반대로, 재산도 매우 넉넉하여진고로 두 조카를 데려다가 양육할새, 형의 아들은 고등교육을 받게 하여 재산 얼마를 나누어 주고, 아우의 아들은 어느 선장에게 촉탁하여 항해술을 가르쳐, 뒤에 배 한척을 사서 주고 여러 곳으로 다니게 하였는데, 나도 어느때 그 배를 타고장사차로 나아가, 다시 케 이차 대근역을 당하게

되었읍니다.

이때 나는 장가를 들어 내외사 이도 매우 좋고, 또 그에게 자식을 셋이나 낳아 칠년간을 세월 가는줄 모르고 즐겁게 지내더니, 우연히 되지 못한 병이 들어 천당으로 돌아가니, 형용할수 없는 슬픈 마음이 무력무력 가슴이 터지게 일어나서, 별안간 마음에 친일과 같이 사해팔방으로 돌아다닐 생각이 가득하여지므로, 집과 친답을 다 내어버리고 있는것이 없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혼도중 날을 보내었습니다. 그후 얼마 지난 뒤에 조카 선장이 어디를 갔다가 돌아온고로, 이야기를 하였더니, 조카가 이런 이야기를 하여 내게 권하되,

「나의 친지가 한번 먼 곳으로 무역을 하자 하는데, 만일 아끼씨께서 나와 함께 가시면 일이 매우 좋겠읍니다. 또 가다가 뿌리실에 이르러, 그후 어찌된 모양도 탐지함이 또한 재미 있을듯 하니, 의향이 어떠하시



오니까 하니, 나도 미상불 이러한 생각  
각이 없지 않아 있던차이라, 얼른  
그리하여보자고 허락하고, 어린 아이  
들의 일은 그 과부에게 부탁하는데,  
더욱 교육에 관한 일은 여려가지로 두  
루두루 신신당부하고 떠나기로 하였  
읍니다.

일천 육백 구십 오년 정월에 조  
카되는 사람이 배 떠날 준비를 마  
친고로, 나는 금요일이로 더부러 함  
께 타고서 이십여년 혼자 지내던 그  
사람 없는 끊어진 심을 향하여 갔읍  
니다.

이번에는 이 심에 가서 요긴한 옷  
감과 솔, 남비, 총, 화약 등속을 실  
고, 또 목수 두사람과 대장과 통장  
이 재봉장과와 도야지와 소를 거느  
렸습니다.

그해 삼월 십일에 배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이에 편안한 곳에 댕을 주  
고, 금요일이를 불러

「그 심이 여기가 아니냐」

하고 불은즉, 한참 해안을 둘러보다

가,

「비, 여기올시다. 여기올시다」  
하고, 마치 미친것 모양으로 뛰놀며  
좋아하더니, 얼마있다가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 별안간에 얼얼에 수색을 떠  
고 눈물을 흘리는지라. 어이한 까닭  
인지 몰라, 내가

「야, 금요일아, 왜 그리 하느냐?  
아비의 생각이 나 그리하느냐」  
한즉,

「비, 아비의 생각이 나서 그리합  
니다」

하더이다. 그러나 금요일이의 걱정은  
헛 걱정이고, 그 아비는 그커살아  
있는고로, 피차 서로 만나서 좋아하  
는 끝은 붓으로 다 그리기 어려우니,  
서로 얼얼을 치어다보며 나려다보며  
입도 맞추며 뺨도 대이며 손도 만  
지며 발도 주드르며 뵈어가 딩쿨기  
도하여 어찌할줄을 모르는것을 보고,  
새삼스럽게 어이 자식의 철리란것은  
특별한것이로군 생각하였읍니다.

그 이른날 금요일이는 과자와 쌀

랑 등속을 아비에게 드리면서 극히  
공양의 정성을 다하니, 뵈어서 보기  
에 부러운 마음도 남디다. 이때 이  
심은 그리스도교 믿는 스페인국 사  
람이 내 대신으로 다스리고 있더니,  
내가 온것은 보고 매우 기꺼워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키의 없는 동안에,  
우리들이 귀국한 여유를 묻는고로, 우  
리가 자제하게 이야기하여드리고 우  
리 떠나간 뒤에 겪은 일은 물어보  
았읍니다.

그리한즉 그 사람의

「불은시니 말씀하되다만, 이 심  
에 떨어졌던 귀국 사람이 암만하  
여도 우리 명령을 듣지 아니하여 패  
우 고생을 하다가, 이리하여서는 아  
니 되겠다 하고 우리들이 드디어 주목  
힘으로 차움을 하여, 그들을 돌보시키  
었읍니다. 또 어느 때에는 어느 야만  
사는 곳을 쳐, 사내 심 일명과 계집 오  
명을 뺏어왔더니, 자식들이 이십여인  
이나 되어서 이 심도 지금은 매우  
인구가 번식하였읍니다」 함디다.



# 조선어학회

## 월례회

구월 십사일 하오 사시에 본회의  
 구월 월례회를 서울 수표철 사십이  
 번지 교육협회에서 열고, 이희승씨의  
 「하자어(漢字語) 표기법에 대하여」란  
 연제로 강연이 있었다.  
 시월 십사일 하오 사시에 본회의  
 시월 월례회를 서울 화동 일백이  
 십 구번지 본회 회관에서 열고, 이  
 극로씨의 「조선말의 시간 표시법」이  
 란 연제로 강연이 있었다.

## 소식

최현배씨 서울 인사동 중앙메배당  
 엽월청년회에서 주최하는 강연회에  
 시월 십사일 하오 칠시부터 동십  
 시까지 이틀동안 한글문체에 대하여  
 강연하였다.

백낙준씨 영문(英文) 조선선교회(朝  
 鮮宣教會) 잡지 구월호에 "What is

Han-keul"이란 장편 논문을 발표  
 하였다.

권덕규씨 경성부 현커등 四六번지  
 에서 경성부 향촌동(杏村洞) 一一〇번  
 지 二七호로 이사하였다.

이희승씨 경성부 효자동 一四四번  
 지에서 경성부 죽림청(竹添町) 二청  
 목 六五번지 二七호로 이사하였다.

김윤경씨 경성부 누하동 二七八번  
 지에서 경성부 누하동(樓下洞) 二四  
 九번지로 이사하였다.

이윤재씨 경성부 화동 一二九번지  
 에서 고양군 한지면 신당리(高陽郡  
 漢芝面 新堂里) 三〇四번지로 이사  
 하였다.

## 朝鮮音學會 강연

조선음성학회에서는 지난 구월 이  
 십팔일 하오 사시에 서울 수표철 사  
 십이번지 조선교육 협회에서 강연화  
 를 열었는데, 연제와 강사는 다음과  
 같았다.

言語心理와 外國語學習 金尙鎔氏

希臘語音에 對하여 孫景壽氏

## 조선말 레코드가 나왔다

조선말 표준어음 교육의 필요로,  
 보통학교 조선어 독본의 교재를 유  
 성기 레코드에 넣었는데, 심의린(沈  
 宜麟), 이종래(李鍾泰), 정인침(鄭寅  
 燮)씨 세분의 지휘로, 경성 사범학교  
 남녀학생과 및 연습과 학생들로 모범  
 낭독, 반독(伴讀), 동요 작곡 독창,  
 케창등 취미 있는것을 붙여넣었다.

## 投稿歡迎

讀者 여러분의 귀중한 意見을 이 紙  
 面을 통하여 발표 하시기 바랍니다.

- 一、研究論文. 한글 연구관한 의견
- 二、感想文. 本誌나 혹 다른 책을  
읽고 감상된것.

- 一、通信文. 한글에 관계 된것으로  
本社나 知舊에게 글월 보낸것.
- 一、研究資料. 지방 사투리, 傳來童  
謠, 民謠, 傳說, 古談等 其他.



崔鉉培氏著 **중등 조선 말본** 畝八十錢  
 崔鉉培氏著 **우리 말본** 畝九十錢  
 金料奉氏著 **김더 조선 말본** 畝二圓半錢  
 申明均氏著 **한글 歷代文選** 畝一圓  
 申明均氏著 **周時經先生遺稿** 畝一圓  
 中央印書館 **訓民正音原本** 畝二十錢  
 朝鮮語學會 **한글마춤법동일안** 畝二十錢  
 權憲奎氏著 **朝鮮語文經緯** 畝一圓  
 張志暎氏著 **朝鮮語綴字法講座** 畝一圓  
 金克培氏著 **한글鐵筆書自習書** 畝五十五錢  
 宋完植氏著 **最新日鮮大字典** 畝一圓半錢

**한글 支社**

鎮南浦 三和町 姜 焄	光州邑 崔奇一	東京市 品川區 大井水神町 姜鎬哲	二〇七九 朴周陽	載寧邑 日新里 李明克	鐵山邑 東平洞 劉天德	義州邑 鄉校洞 朴潤元	平北 七坪市 金成煥	尙州邑 金永斗	統營邑 鄭德寶	高敞邑 陳春海	全北 全州邑 大和町 天主 徐廷壽	教會 平北 宣川郡 水清面 嘉物 田蒙秀	南洞 盧在甲	慶南 金海邑
-------------	---------	-------------------	----------	-------------	-------------	-------------	------------	---------	---------	---------	-------------------	----------------------	--------	--------

總販賣所 **京城府 堅志洞 三二番地 漢城圖書株式會社**  
 電話(光)一四七九番 振替京城七六六〇番

**社告**

地方에서 한글 支社를 設置하고서 하시는분은 한번 書面으로 물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朝鮮語學會**

**定價**

一個月 七錢	代金은 받듯이
三個月 二十錢	선금을
六個月 四十錢	要함。
一年 七十五錢	

**廣告料**

表紙 表面 二十圓	詳細는
全 裏面 十五圓	相議를
普通頁 十圓	要함。

昭和十年十月廿九日 印刷  
 昭和十年十一月一日 發行

編輯兼 發行人 **李允宰**  
 京城府 堅志洞 三二番地  
 印刷人 **金鎮浩**  
 京城府 堅志洞 三二番地  
 印刷所 **漢城圖書株式會社**  
 京城府 花洞 一二九番地  
 發行所 **朝鮮語學會**  
 振替 京城一〇〇四四番



# 한글 統一案 贊成員 募集

現今 各種 出版物이 一齊히 한글 綴字法을 쓰에 不拘하고 오직 聖  
 經만이 舊式 綴字法대로 써서、一般 靑年이나 學生에게 不便을 줌이  
 많음을 切感하였나이다。

本會는 한글 統一案의 普及을 促進하게 할 뜻으로 우선 新約全書  
 한글권을 統一案에 의지한 綴字로 改正 印刷하여 實費로 一般에게 提  
 供하기로 하나이다。

누구시든지 이 뜻을 贊成하시는 이는 葉書에 姓名과 住所를 쓰시고  
 「贊成」이라고 적어서、左記 場所로 보내주시기를 바라나이다。

京城府義州通一丁目一三九

한글 統一案 普及會 白